

한국목록규칙에서 판과 쇠의 서지요소 기술형식 개선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scriptive Form of the Edition and Impression in the Korean Cataloguing Rule

이 명 규 (Myounggyu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목록규칙 서지요소 기술형식 개선(안) |
| II. 판과 쇠의 서지요소와 목록규칙 | V. 결론 |
| III. 목록에서 서지요소 기술 문제 | |

요약: 이 연구는 현재의 목록규칙에서 판과 쇠차표시, 발행년 표시 등의 서지요소를 기술하는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한국목록규칙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서관에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목록의 수준과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가 다양해지고, 메타데이터의 기술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서지요소의 개발과 기술방식의 변경이 기존 표준화의 틀을 바꾸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판과 쇠의 용어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존 목록규칙을 대상으로 이 표기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봄, KCR4를 중심으로 목록 예시를 통해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서지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KORMARC 작성에 반영하는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단행본 도서의 기술형식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도서관목록의 서지기술요소는 기술대상자료의 서지요소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이에 목록규칙의 개선(안)은 먼저, 목록규칙의 판사항에 판표시와 쇠차표시를 기술하도록 한다. 그리고 발행년의 기술은 해당 판의 최초발행년 기술이 아니라 최신발행년을 기술하게 한다. 발행년의 기술범위는 발행월까지 확대한다. 둘째, KORMARC형식에서 판사항에서 쇠차표시는 250필드 식별기호에 부여하며, 쇠차표시는 2쇄부터 숫자로 기술한다. 발행년월의 표시는 260필드의 한 식별기호에는 발행년을 적고 다른 식별기호에는 발행월을 기술한다. 발행년월은 해당출판물의 표제면과 판권기에 실려있는 최신년월이 기술된다.

주제어: 한국목록규칙, KORMARC형식, 서지기술사항, 판사항, 쇠차표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describing bibliographic elements such as edition, impression, and year of publication in the current Cataloging Rules, and to present improvements to the KCR and the KORMARC Forma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 in the library, the level and scope of the cataloging that can be provided to users should be adjusted. As data is diversified and descriptive method of metadata develops, the development of bibliographic elements and the change of the descriptive method are changing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tandardization. As a research method, w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edition and impression,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description of edition and impression targeting KCR. And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methods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to be added or modified through cataloging examples, and examine the format reflected in KORMARC. This study is intended to be limited to the descriptive form of books. The bibliographic elements of the entry in the library must be fully consistent with the bibliographic elements of the material to be catalogued.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to the cataloging rules. First, the edition of the cataloging rules shall describe the edition statement and the impression statement. In addition, the description of the year of publication describes the latest year, not the first year of publication of the edition of the material to be catalogued. The descriptive scope of the year of publication is extended to the month of publication. Second, in the KORMARC format, the description of impression in edition statement is given to the identifier in the 250 field, and is numerically described as the second impression. When presenting the month and year of publication, one identifier in the field 260 describes the year of publication and the other identifier describes the month of publication. The description for the month and year of publication is stated the latest month and year on the title page and the colophon of the publication.

KEYWORDS: Korean Cataloguing Rule, KORMARC Format, Bibliographical Description Area, Edition Statement, Impression Statement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20-1890)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 ISNI 0000 0000 3622 0380)

• 논문접수: 2021년 8월 24일 • 최초심사: 2021년 9월 4일 • 게재확정: 2021년 9월 19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217-238,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3.202109.217>

I. 서론

도서관에서 목록의 작성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도서관목록이 자료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목록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목록에 포함되는 서지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술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도서관목록은 해당 자료의 서지정보를 기록하는 2차자료로서, 오래 전부터 해당 자료의 표제와 책임표시, 판, 발행 등의 다양한 서지요소를 시대에 따라 일정한 체계로 기술하여 이용자들에게 자료 검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지요소 중에는 판표시를 기술하는 판(版)사항이 있고, 이 판표시를 기준으로 발행사항의 발행년 요소를 기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과 구별되는쇄(刷) 표시를 기술하기도 한다. 이는 다른 자료와 구별하는 식별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자료 검색에 활용되는 이러한 목록도 ICT의 발전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목록의 작성 방법이 변하고, 이 목록에 기술되는 서지요소들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도서관목록을 작성하는 기법이 마련되고, 이 목록에 기술되는 서지요소들도 표준화되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도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에 따라 목록의 서지기술요소를 편성하였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을 통해 목록을 구축하였으며, 이용자들은 OPAC을 통해 필요한 정보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 받게 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장서의 보전을 위해 대출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에 자료 변상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 변상은 동일도서(자료)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의 변상 방법은 해당 도서의 정가를 기준으로 한 산출 방식의 변상 방법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도서의 일치도와 변상액의 계상에 활용되는 서지정보는 표제나 책임표시, 판표시, 발행사항, 도서 정가 등의 서지요소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행년이 오래된 자료인 경우에는 동일도서의 변상이 어렵기 때문에 금액 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도서로 변상할 경우에도 분실되거나 훼손된 기존자료와 일치 확인이 필요하다. 이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서지요소는 목록의 표준서지정보뿐만 아니라 발행년, 쇄차표시, 도서 정가 등 구체적인 서지요소다. 이러한 서지요소의 기술과 파악은 자료 변상에 대한 정확한 계상에 따라 도서관은 원자료의 보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산출된 변상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제시로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발행되는 자료도 있다. 이런 자료는 특정출판사에서 동일한 판으로 쇄차를 표시하여 시대에 따라 가격을 정해 계속하여 발행한다. 이 때도 도서관목록에는 동일한 판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쇄차가 달라도 발행사항에 초판의 발행년을 기술하며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목록은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검색하고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1판의 판으로 발행하지만 1판과는 발행일과 도서정가, 쇄차표시가 다를 수

있는데, 제1판의 인쇄라는 것으로 제1판의 발행년을 기술하고 정가는쇄 발행의 정가를 기술하고 있어서, 목록대상자료와 목록의 서지요소가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목록대상자료와 목록의 서지요소 일치하는 이용자에게 자료 식별과 자료 변상 계상에 믿음을 주는 합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더구나 온라인 환경에서 기존의 MARC을 통한 목록 작성뿐만 아니라 DCMI나 MODS로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도서관목록도 서지기술요소의 변화를 가져올 때라고 본다. 다시 말해 자료의 보전, 이용자의 요구와 관계에 맞는 서지정보를 제공하도록 서지요소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보전, 이용자와의 관계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목록 작성에 활용되는 서지정보의 요소 중 판,쇄, 발행일 등의 서지요소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판과쇄의 용어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존 목록규칙을 대상으로 이 표기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봄, KCR4를 중심으로 목록 예시를 통해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서지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KORMARC 작성에 반영하는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단행본 도서의 기술형식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II. 판과쇄의 서지요소와 목록규칙

목록의 기능(한국도서관협회, 2003, 3)은 “특정 저자의 저작과 표제의 저작, 또는 특정 주제의 저작을 탐색한다”는 탐색기능과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모든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집중한다”는 선정과 식별기능을 가지고 있다. 목록은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고 식별하여 이용하는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목록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서지정보의 구성 요소와 기술방식을 알아야 한다. 동·서양의 여러 목록규칙에는 다양한 서지정보를 선정해서 기술하였고, 국제적으로도 목록에 기술되는 서지요소와 기술 방법을 표준화하였다. 그 중에서 이 연구와 관련있는 판(版)과쇄(刷)의 개념과 종류, 기술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판,쇄의 개념과 종류

도서관목록에 표기되는 서지정보 중에 판(edition)의 종류를 구분해서 기술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를 판사항(edition statement)이라 한다.

판(版, edition)은 일반적으로 종이에 인쇄하기 위해 원형(原型)이 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지

만, 출판에서는 “인쇄해서 책을 만드는 일”로 “동일의 원판을 사용하여 인쇄된 저작물의 총 부수를 말하는 것이며, 인쇄의 시기 여하는 상관없다. 판은 몇 회로 나누어 인쇄되며 판은 그것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몇 회의 쇄(刷)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정태원, 1986, 608)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원판으로 인쇄된 책 전체를 이르는 말”(한국도서관협회, 2010, 362)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료의 판을 나타내는 문자나 단어, 구”(IFLA, 2011, 264)를 기술하거나, “도서의 판차나 판의 종류를 목록에 기술하는 요소로 보는 것”(한국도서관협회, 2010, 363)을 판사항이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그 도서 자체에 표시된 것을 말하는데, 몇 판인가를 표시하는 판차는 판권기나 표제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판의 종류에 관한 표시는 판권기와 표제면 외에 표지나 뒷표지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표제의 일부가 되는 것도 있다”며 판표시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것은 그 자료를 개별화하는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판사항은 목록에서 서지정보로 활용되는 요소 중의 하나다.

쇄(刷, impression)는 “동일한 판으로 한 번에 인쇄한 것이거나 발행한 부수”(IFLA, 2011, 267)를 의미하며, “동일한 판을 사용하여 다시 찍어도 중쇄(重刷)라고 하고 제1쇄, 제2쇄로 표시하며 이 회수를 쇄차(刷次)라고 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205). 일반적으로 하나의 판은 여러 쇄(impression) 또는 인쇄(printing)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판(new edition)이 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전면 혹은 약간의 변화, 또는 활자를 다시 조립하여야 한다. 동일 활자나 내용의 변화없이 발간된 도서를 판이 변경된 도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판과 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크기를 변경하였거나 활자를 변경한 것은 이판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자료의 크기나 활자체의 변화는 판(版)의 변형으로 보고 판사항에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식을 정정하는 수준에서 원판을 변경한 경우 정정판(訂正版)이라고 하는데 현대 출판물에서는 쇄로 포함하지만 판차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205)며 판과 쇄의 기준을 자료 크기, 활자체, 오식정정 등을 제시하며 그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

출판에서 ‘판(版)’은 어떤 형태로 표기하며, 도서관목록에 채기될 수 있는 용어의 유사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자료의 발행은 초판이지만 이 경우에는 초판, 제1판을 기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초판이나 제1판에 해당하는 원판을 기준해서 이 원판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판표시를 목록에서는 판사항에 기술한다.

목록에서 판사항은 도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증보, 개정 등 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개정표시와 자료의 인쇄, 장정 등 서지적 특성에 대한 판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김남석, 2008, 352-353). 다시 말해 출판에서의 판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용의 개정에 의한 판차이고, 둘째는 서지적 의미에서 장정에 의한 특수판의 경우다.

첫째, 내용의 개정에 의한 판은 저작이 처음 발행된 것을 초판 또는 제1판이라 하며, 이미 낸

도서의 내용을 고치어 다시 출판한 도서를 개정판(수정판)(revised edition), 개정과 동시에 쪽수가 증가할 때는 증보판(enlarged edition), 내용이 대폭 고쳐진 경우는 전정판(全訂版) 또는 신고판(新稿版), 내용을 고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 경우는 수정증보판이라 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29). 연속적인 숫자를 사용하여 제2판(second edition), 제3판(third edition)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용의 개정이나 보충없이 동일한 판을 사용하는 한 중쇄를 하여도 중판(重版)이라고 하지 않고 중쇄(重刷)라고 하고, 제1쇄, 제2쇄와 같이 표시하는데 이 회수를 쇠차(刷次)라고 한다(한국출판연구소, 2002, 236).

둘째, 개정이 아닌 특수한 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손성우, 이조혁, 1970, 19-20). ① 내용 개변에 의한 판으로 저자 자신이나 타인이 원저에 개변을 가한 종류의 판을 말하며 간략판(요약판)(abridged edition, abridgement), 삭제정정판(expurgated edition), 개작판(adaptation edition), 각색(dramatization) 등이 있다. ② 구매 대상에 의한 판으로는 도서의 판매를 위한 서지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판을 말하며 장식소형판(cabinet edition), 엽가판(cheap edition), 한정판(limited edition), 포켓판(pocket edition), 보급판(popular edition, trade edition), 교과서판(text edition), 삽화본(illustrated edition), 대판(large paper edition), 호화판(édition de luxe) 등이 있다. 이러한 판은 판사항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목록에서 특수판의 채기는 필요에 따라 판사항에 기술하거나 주기하고 있다.

판사항에 기술되는 판표시는 그 간편을 유지하기 위해 서수의 판사항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와 같이 출판에서 활용되는 판과쇄의 개념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판의 종류는 내용의 변경과 서지적 특성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그러나 쇠차는 중쇄라는 용어도 있지만 숫자의 순서로 쇠차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출판계나 도서관계에서도 판과쇄에 대한 개념 구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목록의 판사항에 판과쇄의 서지요소로 기술하여 완전한 서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목록규칙에서 판, 쇠, 발행년 기술

도서관의 목록규칙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목록규칙은 변해 왔으며, 1974년에 국제적 표준인 ISBD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목록규칙(KCR3)도 ISBD를 준용하여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목록규칙에서 자료의 판과쇄, 발행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한국목록규칙 제1판(KCR1)

1961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목록원칙국제회의’는 모든 국가의 목록작성원칙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에 준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을 편찬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1964)는 규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서 1962년에 ‘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부분을 예비판으로 하여 프린트판으로 발행하고, 이어서 1963년에 ‘기술목록규칙’의 부분을 제정 완료하여 1964년 1월에 출판했던 것이다(정필모, 2005, 62).

KCR1의 기술목록규칙 부분은 크게 단행본과 정기간행물로 구분되었으며 총 72조로 구성되었다. 기술사항과 순서는 기술규칙 제2조에 “... 기입되는 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명, 부서명, 저자표시, 판차사항 및 출판사항. 제2절에는 대조사항 및 총서주기사항으로 구성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 KCR1은 판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나타냈다.

이 규칙에서 판차사항 부분은 ‘A. 단행본’ 부문에서 3번째 절인 ‘Ⅲ. 판차(版次)’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판차사항이 다른 사항에 속하지 않고 하나의 독립 사항으로 대두되는 현상이다. 제18조 통칙을 기술하여 보면 “... 내용의 개정이나 증보가 없는 단순한 복간, 또는 증쇄의 서수는 특히 서지적인 중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기입한다. 그리고 개정, 증보 등의 판차도 저자표시 다음에 기입한다”고 나타나 있다. 여기서 단순한 쇄차표시는 서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기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 쇄차표시를 판차에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CR1은 판차와 쇄차를 비교적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차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판차를 저자표시 다음에 하나의 사항으로 독립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판차사항에 서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쇄차표시도 할 수 있게 하여, 판표시와 쇄차표시를 같은 영역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판사항에서 출판년의 표기에 대해 “출판년은 그 도서에 표시된 간년을 채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서력을 원괄호에 넣어서 부기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64, 70)고 하여 출판년의 기술은 도서에 표시된 출판년을 표기함을 알 수 있다.

나. 한국목록규칙 수정판(KCR2)

한국도서관협회(1966)는 1966년에 수정판(KCR2)을 발행하였다. “이 수정판에서는 본래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나 체계상 상당한 변화가 있고 조문의 중복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예시를 더 삽입했으며, ‘표기법’과 ‘약어표’ 및 ‘목록카드’의 실례를 부록하였다”(정필모, 2005, 62). 이 규칙은 3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제1부문은 ‘기본기입의 선정’, 제2부문은 ‘표목의 형식’, 제3부문은 ‘기술목록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KCR1을 수정하면서 조문번호를 일련화(1조~142조)함으로써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3부문(80조~142조)인 기술목록규칙은 규칙 조문의 중복을 회피하고 단일화하여 KCR1 기술목록규칙 72개조에서 KCR2 기술목록규칙 63개조로 축소되었다.

KCR2에서 목록기술사항과 그 순서는 제80조에 “서명, 부서명, 저자표시, 판차사항 및 출판사항” 순으로 기술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판차표시는 제96조에서 “개정, 증보 등의 판차표시는 그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기술 명시를 하고 있고, “... 단순한 복간 또는 중쇄의 서수는 특히 서지적인 중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한다”고 하여, KCR1과 같이 판과쇄의 구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96조에 초판의 기술여부 내용을 “... 초판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목록에서 초판은 기술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처음으로 규정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판사항에서 출판년의 표기에 대해서는 KCR1과 같다.

다. 한국목록규칙 제3판(KCR3)

한국도서관협회(1983)는 1983년에 『한국목록규칙』 제3판을 출간하였다. 세계적으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이 출판되어 우리나라도 이 국제적 표준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KCR3의 기술에 대한 규정은 가급적 ISBD를 준거하느라 애썼다. 그러나 동서와 양서가 지니는 형태적, 언어적 구조의 특성과 관용을 존중하여 각각 그에 합당하도록 규정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1983, 7).

이 규칙에서 “서지정보 기술과 그 순서를 보면, 서명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서적번호 구득조건사항” 순으로 기재한다고 기술해 놓고 있다. 여기서 판표시는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기술하며, “으뜸정보원에 표시되어 있는 용자 그대로 기재한다. 단, 한국토박이 말의 셈수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통일하여 기재하며, 서양어는 ... 표준적 약어형으로 고쳐 표시한다.” 또한 “초판(初版)의 표시는 표제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판(版)자가 붙지 않은 판표시는 이를 보완하여 기재한다.” “단지, 관용상 서명을 이루는 불가분의 요소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서명에 기재한다.” “전판에 비해 차이가 있으나 판표시가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판표시를 각괄호([])로 묶어 보기한다.” 등 표제와 판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한다는 규정을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초판이 표제면에 표기되어 있다면 기술하는 규정 내용도 있다.

한편, “쇄차표시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굳이 그 쇠차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하되 판차표시 다음에 기재한다. 동서에서 표시되어 있는 판자(字)가 실제로는 쇠차의 뜻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록자는 판과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도서에 표기된 대로 판사항에 기술하고 그 판차 다음에 쇠차를 기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5판 [실은 5쇄], 增補改正14版 [실은 14刷] 등과 같다.

그리고 발행사항에서 발행년의 표기에 대해 “발행년이 표제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표제지 뒷면이나 판권기에서 채기할 경우에는 그 판으로서의 최초발행년을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그

판의 최신쇄년을 부기 또는 주기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83, 52)고 하여, 발행년은 초판의 발행년을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쇄의 발행년을 기술하는데, 이 때는 발행년 다음에 부기하거나 아니면 주기사항에 기술하여 검색의 활용보다는 식별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기술규칙

국립중앙도서관(1985)은 목록의 컴퓨터처리작업을 하는데 적용할 목록규칙으로써 ISBD 채택을 결정하였고, 우리나라 출판물을 목록할 때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있었다. 이를 아우르는 기술규칙을 마련하는데 ISBD(M)과 기존의 규정을 체계화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단행본용)』을 1983년에 발행하였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1985년에 보완판을 발행하였다.

이 규칙에서 서지정보의 기술구조와 제요소의 기재순서를 보면, “서명저자표시사항, 판사항, 출판사항, 형태사항, 총서명사항, 주기사항, ISBN 장정 가격사항” 등 7개의 사항 순으로 기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판표시는 판차와 판의 다름을 나타내며 당해출판물의 표제면 및 판권지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초판이나 제1판은 그것이 표제면 및 판권지에 나타나 있어도 이를 기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쇄는 기술하지 않으며 실제로 판으로 쓰여져 있더라도 실제로 쇄의 성격이면 판표시로 기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식별상 꼭 필요할 경우에는 판표시 뒤에 기술할 수 있다”고 쇄차표시는 판사항에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판표시와 유사한 어구로서 당해 출판물의 내용적, 형태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어구(대형판, 최신판, 컬러판, 영문판 등)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표시로 채택하지 않고 관칭 또는 잡제로 기술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85, 118)고 판사항이 아닌 용어도 보여주고 있다.

출판사항에서 “발행년은 년단위로 기술하며, 발행년은 당해 출판물의 표제면, 판권지 및 그 밖의 지면에 나타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최근의 연도를 기술한다. 발행년은 아라비아숫자로 통일하여 기술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85, 137)고 하여 당해 출판물의 최신연도를 기술하게 하는 조항이 다른 목록규칙과는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은 ‘필요할 경우 쇄차연도를 기술한다’는 조항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목록과 해당자료가 발행년, 정가 등 서지적으로 일치하는 일체감을 갖는 것이고, 이용자가 특정연도의 발행물을 제한 검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필요하면 출판물의 최초발행년의 기재는 주기사항에 기술하면 될 것이다.

마.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

한국도서관협회(2003)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매체의 개별적 목록규칙의 제정에 따른 포괄적 수용이 필요하여 통합목록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기존의 KCR3와 KORMARC기술규칙

을 통합하여 KCR4를 2003년에 발행하였다. 이 규칙은 “기본적으로 KCR3의 기술체계를 수용하되,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기술사항을 추가하였으며, KORMARC형식의 사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술규정 일부를 수정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viii).

이 규칙에서 서지정보의 기술구조와 제요소의 기재순서를 보면,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자료특성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등 8개의 사항 순서로 기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판사항은 표제와 책임표시사항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자료를 판표시를 통해 개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대상자료가 속한 판을 기술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수와 판, 또는 다른 판과의 차이를 표현한 ‘개정(改訂)’이나 ‘신(新)’ 등과 같은 어구와 ‘판’이라는 용어를 범위로 하여 표시한다. 단, 이 규칙에서 “쇄차는 판표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41)고, 판표시에서 쇠차표시를 제외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대상자료의 정보원에 ‘쇄’의 역할이지만 ‘판’이라고 기재된 것은 판사항에 기술하고 바로잡은 내용을 병기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쇄차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 하되, 판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기재한다”고 하여 쇠차표시를 판사항에 기술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5판 [실은 5쇄]’의 경우는 쇠의 역할이지만 판으로 기재된 경우이고, ‘제2판, 제5쇄’의 경우는 필요하여 쇠차를 기술하는 경우이다. 이를 보면 규칙 내용이 상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행사항에서 발행년의 표기는 KCR3과 같이, “그 판의 최초발행년을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그 판의 최신재쇄년을 부기 또는 주기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55)고 하여, 쇠의 발행년을 판의 최초발행년 다음에 부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1994쇄)’과 같다.

위 두 가지 예처럼, 판과 쇠표시, 발행년과 쇠차발행년의 관계를 연결해보면, 해당자료 ‘제2판, 제5쇄’는 1994년에 발행되었고, ‘제2판, 제1쇄’는 1990년에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0년에 발행한 자료의 정가 7,000원과 1994년에 발행한 자료의 정가 9,000원일 경우에, 위의 목록 예시로는 해당자료의 서지요소들간의 완전한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즉 ‘제2판, 제5쇄’의 발행년은 1994년이고 가격은 9,000원임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KCR4에서 쇠차는 판표시 범위에서 제외시켜 놓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판표시 다음에 기재한다고 명시하여, 쇠차표시 기술에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쇠차표시를 기술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쇄차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로 명시해 두어, 이 서지요소의 기술을 모호하게 한다. 그리고 발행년의 기재도 목록대상자료 해당판의 최초발행년을 기술하면서, 정가는 해당자료의 최신 정가를 기술하여 해당자료와 목록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목록규칙에서 판표시 기재, 쇠차표시, 발행년 기술의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목록규칙에 나타난 판과 쇄표시 기술위치와 요소

구분	판표시 기재 위치	쇄차표시 기재 위치	발행년 기술 기준
KCR1	판차	판차에 기술 (쇄차표시(서지적 중요경우))	해당도서에 표기된 출판년 기술
KCR2	판차 (초판 기술 안함 명시)	판차에 기술 (쇄차표시(서지적 중요경우))	해당도서에 표기된 출판년 기술
KCR3	판사항 (초판표시는 표제면에 표시되지 않는 한 기재안함 명시)	판사항에 기술 (판표시, 쇄차표시(밝힐 필요 있을 경우))	해당판의 최초발행년 기재 (필요경우, 판의 최신쇄년을 부기나 주기함)
KORMARC 기술규칙	판사항	판사항에 기술 (판표시, 쇄차표시(필요 경우))	해당판의 최신연도 기재
KCR4	판사항	판사항에 기술 (판표시, 쇄차표시(필요 경우)) 발행사항에 쇄차년 기술 (최초발행년 다음에 필요경우 쇄차년 기재)	해당판의 최초발행년 기재 (필요경우, 판의 최신쇄년을 부기 나 주기함)

도서관목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대상자료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목록규칙의 조향과 예시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차표시는 KCR1부터 독립적으로 기술되었고, 서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쇄차표시도 판차에 하였다. 그리고 발행년에 필요할 경우 쇄차연도도 기술하였다. 또 KORMARC기술규칙은 판과 쇄의 기술은 판사항에 하고 발행년의 기술원칙은 해당자료의 최신연도를 기술하게 함으로써 해당자료와 목록의 서지정보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KCR4에서는 최신연도의 발행년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자료와 목록의 서지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며, 최신성 자료 검색이 어렵게 된다. 이에 판과 쇄차 표시, 해당자료의 최신발행년월의 기술방식에 대한 목록규칙의 개선이 필요하다.

Ⅲ. 목록에서 서지요소 기술 문제

목록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서점에서도 이용자에게 서지정보 DB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온라인서점의 목록 서지요소들은 도서관목록에 기재되는 요소들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간뿐만 아니라 중고서적의 스테디셀러도 판매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 온라인중고서점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중고서점의 판매목록의 서지정보를 검색하여 서지정보의 요소, 특히 판과 쇄, 발행년월의 기술방식을 살펴보고, 이어서 앞의 〈표 1〉에 있는 목록규칙별로 서지정보의 요소를 기술하여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온라인중고서점의 목록 기술

‘YES24 중고매장’와 ‘알라딘 중고서점’ 사이트 검색창에서 ‘이문열 삼국지’를 검색하면, 여러 건의 관련 정보가 나타난다. 이 리스트에 기재된 서지요소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YES24 온라인중고서점					알라딘 온라인중고서점				
16		[중고 도서] 민음사)이문열 삼국지 10권중9권 / 안본책인데 한글 부록 / 실사전 참조 새형 이문열 민음사 2009년 10월 출.중고상품 1개 / YES24직배송 0개 / 판매자배송 1개 35,000원(61% 할인)			15.		[중고] 이문열 삼국지 (전10권세트) 민음사 2009년 10월		
17		[중고 도서] 이문열 삼국지 1~10 전10권완결(아주희귀한책)-1993/8 신조판1쇄인데 단 7권완결만 신조판 2쇄임.책상태는 아주양호한책-11555 새형 이문열 민음사 1993년 08월 출.중고상품 1개 / YES24직배송 0개 / 판매자배송 1개 50,000원(9% 할인)					[중고] 민음사)이문열 삼국지/아주깨끗 /문15c 민음사 편집부 (지은이) 민음사 2002년 1월		
18		[중고 도서] 민음사 이문열 삼국지 새형 이문열 민음사 2009년 10월 출.중고상품 1개 / YES24직배송 0개 / 판매자배송 1개 63,000원(30% 할인)			17.		[중고] 이문열 삼국지 세트 /전10권/하단참조) 알라딘(디폴트) 1998년 1월		
19		[중고 도서] 이문열 삼국지 1~10권 세트 - 전10권(1995년 발행본) 새형 나관중 지음 / 이문열 평역 민음사 1995년 02월 출.중고상품 1개 / YES24직배송 0개 / 판매자배송 1개 25,000원(57% 할인)			18.		[중고] 이문열 삼국지 6 이문열 (지은이) 민음사 1988년 5월		
구분	표제	저자	판표시	출판사	발행년	발행월	판매가격	상품사진	상품상태설명
YES24	○	○	○	○	○	○	○	○	○
알라딘	○	○		○	○	○	○	○	

<그림 1> ‘YES24중고매장’ 사이트의 중고 도서 목록과 서지정보

<그림 1>처럼 이 목록의 서지정보는 표제, 저자, 판표시, 출판사, 발행년월, 판매가격, 상품사진, 상품상태설명 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발행년월의 표기가 초판, 신조판, 개정판의 1쇄 발행년을 기재하지 않고 모두 해당 도서의 1쇄 발행년과 발행월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서점이나 이용자들은 해당 도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서지정보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지정보를 보고 구입하는 독자 역시 발행년월의 표기는 초판의 발행년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서관목록에 기재되는 서지정보에서 판사항이나 발행년월의 요소는 이용자가 어떤 특정판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며, 도서관 운영 측면에서는 특정 도서의 복본 구입을 방지하여 도서 선정에

도움을 준다. 특히 동일도서가 판사항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수서된 책은 쓸모없는 복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행년 기술 기준을 초판의 발행년을 채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목록대상자료와 목록 서지정보의 일치는 온라인서점이나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며, 목록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발행년 기술에 특정판의 최초발행년을 기술하는 규정은 재고해야 한다.

2. KCR의 서지요소 기술

‘판’이나 ‘쇄’의 서지요소 목록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30여년 동안 1,800만부 이상이 팔린 스테디셀러인 (주)민음사에서 발행한 이문열 평역의 『삼국지』를 대상으로 판사항과 발행사항을 작성하였다. 이 도서는 1988년 초판 발행부터 신조판, 개정판으로 변경하면서 발행을 해오고 있다. 이 중에서 개정판 39쇄 발행물의 판권기를 정보원으로 하여 앞서 기술한 각각의 목록규칙에 따라 판과 쇄, 발행년 등의 서지정보를 기술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기술대상자료 판권기	목록규칙	서지정보
三國志 제5권 세 번 천하를 돌아봄이여 1판 1쇄 펴냄 · 1988년 5월 30일 1판 19쇄 펴냄 · 1993년 5월 10일 신조판 1쇄 펴냄 · 1993년 8월 15일 신조판 57쇄 펴냄 · 2002년 3월 5일 개정판 1쇄 펴냄 · 2002년 3월 10일 개정판 39쇄 펴냄 · 2011년 8월 17일 지은이 · 나관중 옮긴이 · 이문열 발행인 · 박근섭, 박상준 편집인 · 장은수 펴낸곳 · (주)민음사 출판등록 1966.5.19.제16-490호 www.minumsa.com ©이문열.1988,Printed in Seoul, Korea ISBN978-89-374-5055-6 04820 ISBN9780890374-5050-1(전10권)	KCR1	- 판차사항 개정판 - 출판사항 서울, 민음사, 2011
	KCR2	- 판차사항 개정판 - 출판사항 서울, 민음사, 2011
	KCR3	- 판사항 개정판, 39쇄 - 발행사항 서울: 민음사, 2002
	KORMARC 기술규칙	- 판사항 개정판, 39쇄 - 발행사항 서울: 민음사, 2011
	KCR4	- 판사항 개정판, 39쇄 - 발행사항 서울: 민음사, 2002 (2011쇄)

<그림 2> 이문열 『삼국지』 판권기와 서지기술사례

<그림 2>처럼 판권기의 서지정보와 목록규칙에 따라 기술한 서지정보에서, KCR1과 KCR2에서 판표시 기재는 판차에 기술하고, 쇄차표시는 서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판차에 기재한다. ISBD 이후의 KCR3, KORMARC기술규칙, KCR4에서는 모두 독립적인 판사항에 판표시와 쇄차표시

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년 기술에 대해서는 KORMARC만이 해당판의 최신발행연도를 기술하며, 다른 규칙은 해당판의 최초발행연도를 기술하고 있다.

〈그림 2〉의 판권기처럼 판과 쇠, 특히 쇠차의 발행이 늘거나, 발행시기가 수년에 걸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쇠차표시 이외에 정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쇠차는 그 자료 발행 부수의 판매와 직결되는 문제다. 예를 들면 스테디셀러일 경우, 판권을 가진 출판사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동일한 원판으로 쇠차를 늘려가며 발행하여 수익을 높이고 있다. 이때 시대에 따라 그 자료 가격은 인상되어 정해진다. 따라서 동일한 판의 쇠차는 발행시기에 따라 자료 정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수서할 때, 대중성 있는 스테디셀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최근에 발행된 즉 최근 쇠차가 표기된 해당 자료를 구입할 것이다. 도서관은 이 자료를 목록할 것이고, KCR4에 따라 해당판의 발행년 표기는 해당판의 초판발행년을 기술할 것이고 정가는 해당판에 표기된 정가를 기술할 것이다. 다시 말해, 발행년의 표기는 개정판 1쇄의 발행년인 2002년을 기술하면서 정가 표기는 개정판 1쇄의 정가가 아니라 2011년에 발행한 39쇄의 정가를 기술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쇠차년도를 기재하기도 하지만 KCR4의 분명하지 않은 기재 기준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MARC기술에는 식별기호로 구분짓지도 않기 때문에 검색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는 기술대상자료와 목록의 서지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 식별의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검색결과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목록과 기술대상자료의 서지정보가 일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KORMARC의 서지요소 기술

국립중앙도서관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KORMARC형식(통합서지용)을 2006년에 발표하였고 2014년에 개정하였다. 이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지식정보표준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하여 KCR4를 적용하여 실제적 KORMARC포맷으로 완성되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KCR4를 적용하여 KORMARC(2014년판)에 입력되는 판과 쇠차표시, 발행년월, 정가와 관련한 필드를 중심으로 예시를 제시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판사항 관련한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판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숫자나 문자 그리고 이에 따르는 어구나 축약어가 기술된다. KCR4에 “쇠차표시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되, 판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기재한다.”고 하여 쇠차표시를 목록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림 3〉에 ‘250 bb ▼a제2판, 5쇄’가 그 예시이다.

향후 KORMARC에서 판사항은 판표시 다음에 쇠차표시를 식별기호로 분리하여 부여하고

OPAC이나 검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ORMARC형식-통합서지용(2014)	관사항 예시
250 판사항 (Edition Statement)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의 제2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의 • 식별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판표시 [반복불가] •b 해당 판의 저작자 표시 등 [반복불가] •6 대체문자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250 ♯♯ ♣ a5판 [실은 5쇄] 250 ♯♯ ♣ a增補改正14版 [실은 14] 250 ♯♯ ♣ a4th ed., [3rd impr.] 250 ♯♯ ♣ a제2판, 제5쇄 250 ♯♯ ♣ a속쇄판 250 ♯♯ ♣ a대 활자판 250 ♯♯ ♣ a中文版 250 ♯♯ ♣ a대구판

〈그림 3〉 KORMARC형식-서지통합용(2014) 판사항 예시

발행사항의 발행년 표시와 관련한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KORMARC형식-통합서지용(2014)	관사항 예시
260 발행, 배포, 간사 사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Imprint))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지시기호 - 발행사항의 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불가/해당정보 없음/최초 발행처 2 중간발행처(Intervening publisher) 3 현행/최근 발행처(current/latest publisher) 제2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의 • 식별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발행지, 배포지 등 [반복] •b 발행처, 배포처 등 [반복] •c 발행년, 배포년 등 [반복] •e 제작지 또는 인쇄지 [반복] •f 제작처 또는 인쇄처 [반복] •g 제작년 또는 인쇄년 [반복]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6 대체문자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260 ♯♯ ♣ a漢城 : ♣ b承政院, ♣ c英祖 43[1767] 260 ♯♯ ♣ a서울 : ♣ b행림출판, ♣ c1990(1994쇄) 260 ♯♯ ♣ a서울 : ♣ b광나루, ♣ c1892[실은 1982] 260 ♯♯ ♣ a서울 : ♣ bKBS영상사업단, ♣ c1994, 1995 [배포] <hr/> 260 ♯♯ ♣ a서울 : ♣ b열린책들, ♣ c1974 ♣ g(1992 14쇄) 260 ♯♯ ♣ aHarmondsworth : ♣ bPenguin, ♣ c1949 ♣ g(1963 printing)

〈그림 4〉 KORMARC형식-서지통합용(2014) 발행년표시 예시

발행년 표시는 식별기호 ♣c에 기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발행년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KCR4에 “발행년이 표제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표제면이나 판권기에서 채기할 경우에

는 그 판으로서의 최초발행년을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그 판의 최신재쇄년을 부기 또는 주기한다.” 고 하여 판사항과 상관없이 쇠차발행년을 목록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4>에 ‘260 bb ▼ a서울 : ▼ b행림출판, ▼ c1990(1994쇄)’가 그 예시이다.

향후 KORMARC에서 쇠차표시는 판사항에 기재하여야 하고, 발행사항의 발행년표시는 기술 대상자료의 최신발행년과 발행월을 식별기호로 분리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검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CR4에서는 발행년의 기술 목적은 발행 일자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도, 실제로 기술범위는 연도까지로 하고 있다. 이는 규칙의 제정 시기는 카드목록 환경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 발행일자까지 세세하기 기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OPAC 환경에서는 발행일자까지의 기술도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목록의 식별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발행일자의 기술을 발행년 월일까지 기술해야 한다(이명규, 2019, 15). 그리고 초판의 발행년월은 별도의 필드에 작성하여, 도서의 복본 조사와 관련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BN과 정가 표시와 관련한 예시는 <그림 5>와 같다.

KORMARC형식-통합서지용(2014)	판사항 예시
<p>020 국제표준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날짜 번호 1 세트 번호 제2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미정의 • 식별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국제표준도서번호 [반복불가] • c 입수조건 [반복불가] • g 부가기호 [반복불가] • z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반복] • 6 대체문자 연결 [반복불가] •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p>020 bb • a9788971803400 (2) • g93420 • c₩9000</p> <p>020 bb • a0802142176 (pbk) • c\$1.95</p> <p>020 bb • c\$8.95</p> <p>020 bb • cFor sale (\$200.00 for 3/4 in.; \$150.00 for 1/2 in.)</p>
<p>950 로컬정보 - 가격</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지시기호 - 가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가격이 나타나 있는 경우 1 가격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제2지시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미정의 • 식별기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b에 기술되는 가격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귀(비매품, 가격기) • b 정가, 합산가, 관당가, 전질가, 추정가, 환산가 [반복불가] • c 가격집정보(원골호로 묶어 기술) [반복불가] 	<p>950 0b • b₩5500</p> <p>950 0b • b₩7000 • c(상₩3000, 중₩4000)</p> <p>950 0b • b₩5000 • c(회원가 ₩4000)</p> <p>950 0b • b₩8000 • c(하드보드장 ₩10000)</p> <p>950 0b • b₩5000 • c(전질가격 ₩100000)</p> <p>950 0b • b₩100000</p> <p>950 1b • a비매품 • b₩6000</p> <p>950 1b • a가격불명 • b₩8000</p> <p>950 0b • b₩10000 • c(별책부록 포함)</p>

<그림 5> KORMARC형식-서지통합용(2014) ISBN, 정가표시 예시

ISBN과 입수조건표시는 KORMARC의 020필드 식별기호▼a와 ▼c에 기술하며, '950로컬정보-가격'필드에 자료에 나타난 가격을 기술하고 있다. KCR4에 “가격은 자료에 표시된 정가를 기재하며...”라고 하여 기술대상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정가 또는 입수와 관련된 숫자나 어구를 기술하면 된다. <그림 5>에 '020 bb ▼a9788971803400 (2) ▼g93420: ▼c₩9000', '950 0b ▼b ₩5500'이 그 예시이다.

기술대상자료의 쇄차, 발행년월, 가격 등의 서지요소가 목록의 서지정보와 서로 일치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IV. 목록규칙 서지요소 기술형식 개선(안)

도서관에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목록의 수준과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체·자료의 다양성, 메타데이터의 기술방식의 발전 등에 따라 서지요소의 개발과 기술방식의 변경이 기존 표준화의 틀을 바꾸고 있다.

기술대상자료의 서지 내용과 목록의 서지요소의 내용이 일치하는 DB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자료 검색과 식별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자료 관리에 효율을 높여주는 목록규칙과 기술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판과 쇄차표시, 해당자료의 최신발행년월 표시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본다.

1. KCR의 개선

KCR4에서, 판사항의 기술 목적은 “표제와 책임표시사항만으로는 식별되지 않은 자료를 판표시를 통해 개별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의 범위에서는 “쇄차는 판표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방법에서도 “쇄차표시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며 판사항에서 쇄차표시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자료의 식별기능을 충족하고 자료의 개별화를 위한 판사항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술방법이다.

따라서 판사항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범위와 방법은 판표시로 제한하지 않고 쇄차표시의 기술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쇄차표시의 기술은 기술대상자료의 최신성, 정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행사항의 발행년월 표시에 대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구두점과 띄어쓰기 등은 제외한다.

KCR의 판사항의 판과 쇄차 표시, 발행사항의 발행년월 표기의 개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① 판사항의 판과쇄표시 (목적) 기술대상자료가 속한 특정 판과 그 판의쇄표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범위) 서수와 판, 또는 다른 판과의 차이를 표현한 '개정(改訂)'이나 '신(新)' 등과 같은 어구와 판이라는 용어와, 특정 판의쇄표시를 숫자와쇄라는 용어를 범위로 한다. (기술방법) 판과쇄표시는 해당자료의 표제면 및 판권기에 표시되어 있는 바를 정보원의 전거로 삼아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쇄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판과쇄표시) 초판(제1판)의 판표시와 제1쇄의쇄표시: 초판이나 제1판은 정보원에 나타나 있어도 이를 기술하지 않으며, 초판이나 제1판의 2쇄인 경우는쇄표시만 기술한다. 단, 특정판의쇄표시는 2쇄부터 특정판을 기술하고 다음에쇄표시를 부기한다. 예시1) 신조판 2) 2쇄 3) 개정판, 2쇄</p> <p>② 발행사항의 발행년월 표시 (기술범위) 발행년월은 해당출판물의 표제면이나 판권기에 실린 최신일자를 발행년과 월까지 기술한다. 특정판의 최초발행년월은 주기사항에 주기한다. (기술방법) 발행년월은 서력기년과 월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한다. 예시1) 2020. 08 2) 2003. 12</p>
--

2. KORMARC의 개선

KORMARC(통합서지용) 개정판에 따르면, 판사항은 250필드, 발행사항의 발행일은 260필드의 ▼c 발행년 등의 서지기술필드가 있다. 이를 KCR의 개정(안)에 따른 KORMARC형식 개선(안)을 제시하면, 판사항(250필드)에는 기존의 판표시(▼a)와 개선(안)의쇄표시(▼c)를 추가하고, 발행사항(260필드)에는 기존의 발행년(▼c) 발행년과 개선(안)의 발행월(▼d)을 추가하여 기술한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지요소	기술 내용
판사항 판,쇄	<p>(250 판사항) 이 필드에는 해당저작의 판과 그 판의쇄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기술한다. 예시) 250 판사항(Edition Statement) ■ 식별기호 ▼a 판표시 [반복불가] ▼c쇄표시 [반복불가] 적용지침 ▼a - 판표시 판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숫자나 문자의 어구나 축약어가 기술된다. 250 bb ▼a신조판 250 bb ▼a개정판 ▼c -쇄표시 쇄표시는 해당자료의 가장최신의쇄차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한다. 250 bb ▼a신조판 ▼c57쇄 250 bb ▼c12쇄 250 bb ▼a신조판 ▼c39쇄</p>

서지요소	기술 내용
발행사항 발행년월	<p>(260 발행사항) 이 필드에는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c), 발행월(▼d)을 기술하는데, 해당출판물의 표제면이나 관련기에 실린 최신일자를 년월까지 기술한다. 또한 자료의 초판이나 특정판의 최초발행년(▼s), 발행월(▼t)을 기술한다.</p> <p>예시) 260 발행, 배포, 간사 사항(Publication, Distribution, etc(Impr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기호 ▼c 발행년, 배포년 등 [반복] ▼d 발행월, 배포월 등 [반복] ▼s 최초발행년 [반복불가] ▼t 최초발행월 [반복불가] <p>정의와 범위</p> <p>이 필드에는 저작의 발행, 인쇄, 배포, 제작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한다. 또한 초판이나 특정판의 최초발행년월을 기술한다. 최초발행년월이 식별기호▼c와 ▼d의 발행년월과 같은 경우에는 식별기호 ▼s와 ▼t는 기술하지 않는다.</p> <p>적용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 발행월, 배포월 등 <p>발행월을 기술한다. 식별기호▼d는 항상 빈칸을 앞세워 ▼c 다음에 기술한다. 발행월은 2자리의 숫자로 기술한다.(예, 01, 02, 12)</p> <p>260 bb ▼a서울 : ▼b민음사, ▼c2011 ▼d08 260 bb ▼a서울 : ▼b국립중앙도서관, ▼c2006 ▼d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 - 최초발행년 <p>최초발행년을 기술한다. 식별기호▼s는 항상 빈칸을 앞세워 ▼d 다음에 기술하며 ▼t 와 함께 원괄호(())로 묶는다.</p> <p>최초발행년은 4자리의 숫자로 기술한다.(예, 2002)</p> <p>260 bb ▼a서울 : ▼b민음사, ▼c2011, ▼d08 ▼s2002 260 bb ▼a서울 : ▼b국립중앙도서관, ▼c2006, ▼d01 ▼s19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 - 최초발행월 <p>최초발행년의 발행월을 기술한다. 식별기호▼t는 항상 빈칸을 앞세워 ▼s 다음에 기술하며 ▼s와 함께 원괄호(())로 묶는다.</p> <p>최초발행년의 발행월은 2자리의 숫자로 기술한다.(예, 01, 02, 12)</p> <p>260 bb ▼a서울 : ▼b민음사, ▼c2011, ▼d08 ▼s2002 ▼d03 260 bb ▼a서울 : ▼b국립중앙도서관, ▼c2006, ▼d01 ▼s1985 ▼d12</p>

이와 같이 개선(안)의 내용으로 변경하였을 때, KORMARC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판의 지속적인 쇄차 발행에 따라 최신발행년을 기술할 경우 동일한 서지레코드가 중복해서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KORMARC포맷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로 보이며, 별도의 필드(261)를 생성해서 해결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MARC형식과는 다른 MODS나 DCMI와 같은 메타데이터의 출현으로 프로그램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목록의 서지정보는 기술대상자료의 서지요소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온라인 서점의 목록 사례처럼 상품자료의 서지정보와 일치하는 서지기술과 심지어는 발행일자까지 기술하는 서지요소의 확장하고 있는 상품목록을 보면, 도서관 목록규칙은 서지정보의 구성과 기술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선(안)의 목록규칙과 KORMARC형식에 따라, <그림 1>의 판권기에서 판, 썬차, 발행년월 등의 서지요소를 기술해보면 <그림 6>과 같다.

구분	현행		개선(안)	
서지 정보 (OPAC)	판사항 발행사항 정가	개정판 서울: 민음사, 2002 12,000원	판사항 발행사항 주기사항 정가	개정판, 39썬 서울: 민음사, 2011. 08 1썬 발행일: 2002년 3월 12,000원
KOR MARC 레코드	250 260 950 0	▼a개정판 ▼a서울:▼b민음사,▼c2002 ▼b₩12000	250 260 500 950 0	▼a개정판,▼c39썬 ▼a서울:▼b민음사,▼c2011.▼d08 (▼s2002,▼t03) ▼a1썬 발행일: 2002년 3월 ▼b₩12000

<그림 6> 목록규칙 개선(안)으로 기술한 서지정보 예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지요소의 기술 내용은 판과 썬차표시, 발행사항에서 발행년월까지의 표기, 그리고 해당자료의 최초발행년의 표기가 아닌 해당자료의 최신발행년월의 표기 등을 기존 규칙의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V. 결 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목록의 형태나 작성 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목록의 기능도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여 활용할 때, 비로소 목록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1차자료인 기술대상자료의 서지 정보와 2차자료인 목록의 서지정보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행의 목록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판과 썬차, 발행년월 등 서지요소 기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제시해 본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에서 판의 개념은 동일한 원판으로 발행된 자료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썬는 동일한 원판으로 한 번에 발행한 부수를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썬 발행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썬차가 표시되며 이는 모두 동일한 판이다. 판의 종류는 내용의 개정이나 서지적 의미에서 장정의 변경에서 나타나는 판관련 유사어를 판으로 보고 이를 판사항에 서지기술한다.

둘째, 우리나라 목록규칙에서 판사항의 기술은 KCR1부터 KCR4까지 하나의 서지기술사항으로 독립되어 판차가 기술되고 있다. 판사항이 목록의 식별 기능에 도움을 주는 서지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초판이나 제1판은 기술하지 않고 있다.

셋째, 쇠차표시의 기술에 대해서 KCR1, KCR2는 서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판차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CR4에서는 오히려 판사항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놓고, 필요할 경우에는 판표시 다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사항의 최초발행년 다음에 쇠차가 표기된 쇠의 발행연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목록규칙을 통해 판과 쇠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기술대상자료와 목록의 서지정보가 서로 일치하고 더 세세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록에 필요한 서지요소는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목록에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규칙의 판사항에 판차와 쇠차표시를 기술한다. 그리고 발행년의 기술은 해당판의 최초발행년 기술이 아니라 최신발행년을 기술한다. 이때 최초발행일은 발행사항에서 해당판의 발행년월 다음에 최초발행년월을 월괄호(())에 기술한다. 또는 주기사항에 기술하여 이용자들에게 식별요소로 제공한다. 그리고 발행년의 기술범위는 발행년월까지 표기하고 기술방법은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하여 기술한다. 이는 이용자에게 검색의 수월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KORMARC형식에서 판사항에 쇠차표시는 250필드 식별기호▼c에 부여하며, 쇠차표시는 2쇄부터 숫자로 기술한다. 발행사항의 발행년월의 표시는 260필드 식별기호▼c에 발행년, ▼d에 발행월을 기술하며, 해당판의 최초발행년월의 표기는 발행사항의 260필드에 식별기호를 신설하여 ▼s에 최초발행년, ▼t에 최초발행월을 기술한다. 또는 주기사항 500필드에 기술한다.

이와 같은 개선(안) 내용은 KORMARC포맷의 기술프로그램 수정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 기존 규칙과 프로그램형식을 유지하면서 개선(안) 적용은 어렵다. 전향적인 마음으로 포맷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MARC형식과는 다른 MODS나 DCMI와 같은 메타데이터 프로그램 개발에 개선(안)의 서지요소도 포함시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목록규칙의 개선은 기술대상자료의 서지내용을 목록의 서지정보 기술로 완전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상세수준의 서지기술로 완성도를 높은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1985).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단행본용, 예비노트보완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4).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개정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출처: https://librarian.nl.go.kr/kormarc/kormarc_2014/index.html

김남석 (2008). 자료목록학 (제4개정증보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손성우, 이조혁 공편 (1970). 양서목록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명규 (2019). 목록에서 발행사항의 발행년 기술형식의 개선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21.
- 정태원 (1986). 출판, 인쇄, 도서관 저작권, 서지, 매스컴의 사전. 서울: 일서각.
- 정필모 (2005). 목록조직론 I. 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
-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한국목록규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목록규칙 (수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83). 한국목록규칙 (제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출판연구소 (2002). 출판사전. 서울: 범우사.
-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2011). ISBD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Consolidated Edition). Berlin: Walter De Gruyter Gmb.
- 알라딘중고서점. 출처: <https://www.aladin.co.kr/>
- YES24중고매점. 출처: <http://www.yes24.com/>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eong, Pil-Mo (2005). Introduction to Cataloging I. Gyeonggi Paju: KSI.
- Jung, Tae Won (1986). Publishing, Printing, Library Copyright, Bibliography, Mass Com Dictionary. Seoul: Ilseogak.
- Kim, Nam Seuk (2008). Introduction to Cataloging (4th Edition).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4). Korean Cataloging Rul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6). Korean Cataloging Rules (2n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83). Korean Cataloging Rules (3r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vised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2002). Publication Terminology Dictionary. Seoul: Bumwoosa.
- Lee, Myounggyu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date of publication in the catalo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21.
- National Library of Korea (1985).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Rules: Monograph (Enlarged edit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Integrated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Revised ed.)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Available: https://librarian.nl.go.kr/kormarc/kormarc_2014/index.html
- Son, Sung Woo & Lee, Jo Heok (1970). Introduction to Cataloging Western Books. Seoul: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